



뉴욕시의 경제적 측면에서 본 이민자의 역할

Thomas P. DiNapoli
뉴욕주 감사관

Kenneth B. Bleiwas
부감사관

리포트 17-2010

2010년 1월

개요

- 1970년에서 2008년 사이에 뉴욕시에 거주하는 외국 출생 인구는 3백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반면, 미국 출생 인구는 백만 명 이상이 감소했다.
- 2008년의 뉴욕시 인구 중 36.4%(1970년 수치의 두 배)와 노동력의 43%는 이민자가 차지했다.
- 현재 뉴욕시에는 출퇴근하는 28만 5천 명을 포함하여 190만 명 이상의 외국 출생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다. 외국 출생자들은 뉴욕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30%를 차지한다.
- 2008년에 이민자는 뉴욕시의 경제 활동 측면에서 2천150억 달러를 벌어들였고, 이는 뉴욕시 총 생산량의 32%이다.
- 2000년에서 2007년 사이에 외국 출생 거주자들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10개의 지역은 뉴욕시의 나머지 지역보다 더 큰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
- 뉴욕시에 거주하는 외국 출생 인구의 가계 수입 중앙값도 1990년에는 23,900달러였으나 2007년에는 45,000달러로 뛰어 거의 두 배 증가했으며, 이는 물가 상승치보다 큰 상승폭이다.
- 뉴욕시에서 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민자의 수도 1991년에서 2008년 사이에 두 배 늘어났다. 외국 출생 거주자들은 2008년 전체 자가 주택 소유자들의 60%를 차지한다.
- 외국 출생 근로자들은 간호, 정신 의학, 가정 간호 도우미의 72%, 자격증이 있는 임상, 직업, 공인 간호사의 50% 이상, 내과 및 외과 의사의 46%, 회계사 및 회계 감사원의 40%, 회사 임원의 27%, 초등 및 중학교 교사의 21%를 차지한다.

뉴욕시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에게 기회의 관문이 되어왔다. 연속적인 이민 물결은 문화의 용광로를 형성하여 뉴욕의 역사와 지역사회에 그 흔적을 남겼다.

이민 근로자들은 뉴욕시와 시의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도움을 주고 시를 유지하기 위한 다수의 일자리를 채우고 있으며, 주요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를 설립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오늘날 이민자들은 뉴욕시 노동력의 43%를 차지하고 다양한 위치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1970년대 이래로 이민은 뉴욕시의 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었다. 이민자 수의 증가는 미국 출생 인구의 감소 부분을 상쇄하고도 남으며 이에 따라 뉴욕시의 총 인구 수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새 이민자 덕분에 뉴욕시 전역에 있는 지역사회의 경제가 되살아났다.

차이나타운, 플러싱, 워싱턴 하이츠, 코니 아일랜드, 엠허스트, 코로나 등과 같은 지역은 모두 이민 거주자들에 의해서 회복된 경제의 활력을 보여준다. 이는 많은 이민자가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하여 사업체를 설립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결과였다. 이민자들의 수입이 증가하자 이들의 주택 소유도 늘어났고 이에 따라 뉴욕시에 대한 이들의 연대감도 강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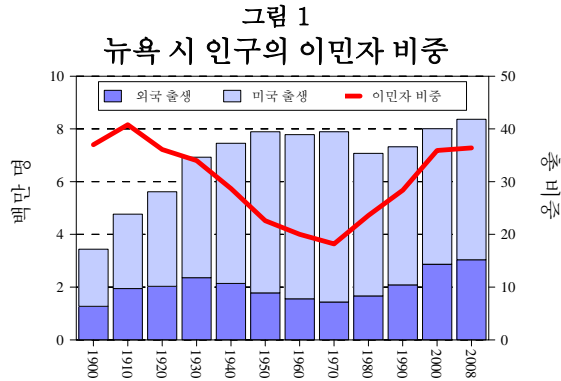
이민자들은 뉴욕시의 최근 경제 성장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2000년에서 2008년 사이에 뉴욕시 이민 근로자 수는 68% 증가했고 임금 역시 거의 39% 상승했으며 뉴욕시 총 생산량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61%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 수치는 뉴욕시 미국 출생 근로자들의 상용 수치를 모두 초과한다.

앞으로의 뉴욕시 경제 성장 역시 이민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민은 뉴욕시가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경제적 진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다양한 문화 그룹 사이의 협력과 이해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뉴욕시의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되기도 한다.

인구 추세

수백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온 이민자들이 뉴욕시의 경제, 문화, 정치를 형성해 왔다. 20세기 동안에 뉴욕시 인구에서 이민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910년에 41%로 정점을 이루었다. 1970년이 되자 이민자들은 시 인구의 18%만을 차지한다. 뉴욕시의 전체 인구가 1970년대에 감소하기는 했으나, 이민자 인구는 다시 증가하여 뉴욕시의 인구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게 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1970년에서 2008년 사이에 뉴욕시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은 3백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반면, 미국 출생 인구는 백만 명 이상 감소했다. 그 결과 이민자들은 2008년에 뉴욕시 인구의 36.4%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1970년 수치와 두 배에 달한다(그림 1 참조).¹



참고: 미국 인구통계국은 푸에르토리코 출생자, 미국 본토의 지역 출생자 또는 해외에서 미국인 부모에게 태어난 사람을 미국 출생으로 간주함.
자료 출처: 뉴욕시 도시계획부(NYC Department of City Planning), 미국 인구통계국(U.S. Census Bureau), OSDC 분석

뉴욕시 경제 성장의 대부분은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발생했으며, 이 시기에 외국 출생 거주자의 수는 38% 증가하고 미국 출생 거주자의 수는 2% 감소했다. 2008년에 뉴욕시에는 3백만 명 이상의 이민자가 살고 있고, 뉴욕시에 일자리를 두고 통근하는 이민자까지 합하면 이 수는 28만 5천 명이 더 늘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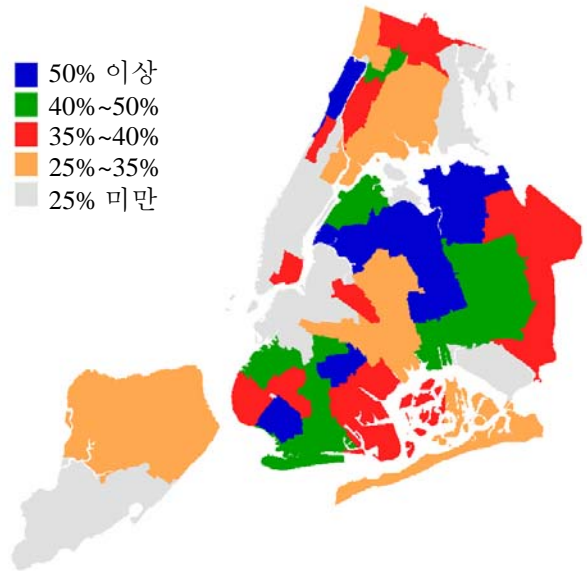
뉴욕시 이민자들의 출신 국가는 148개로 다양하지만, 이민자들의 52%는 고작 10개국 출신이다. 이 나라 중 1위는 도미니카 공화국이고, 그다음은 중국, 자메이카, 멕시코, 가이아나, 에콰도르, 아이티, 트리니다드 토바고, 러시아, 한국이 뒤따르고 있다.

¹ 미국 인구통계국(U.S. Census Bureau)은 미국, 푸에르토리코, 기타 미국 본토 이외의 지역에서 태어나거나 국외에서 미국 부모에게 태어난 사람을 미국 시민으로 정의한다. 이 외의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외국 출생자이다. 이 보고서는 뉴욕시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 출생자를 이민자로 규정한다.

생활과 근로

뉴욕시에서 거주 및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으로 특징지어지는 독특한 성격 때문에 뉴욕시는 항상 여러 지역사회로 구성되어 있었다. 미국 인구통계국(U.S. Census Bureau)이 규정한 뉴욕시의 55개 지역 중에 9개 지역은 이민자 인구가 해당 지역의 전체 인구의 50%를 넘는다. 다른 10개 지역에서는 각 지역의 총 인구 수의 40%~50%를 이민자들이 구성한다. 그림 2는 뉴욕시 이민 인구의 지리적 분포도를 보여준다.

그림 2
뉴욕시 이민자 인구의 지리적 분포도



자료 출처: 미국 인구통계국(U.S. Census Bureau), OSDC 분석

전체적으로, 이민 거주자 비중이 각각 47%, 37%인 퀸즈와 브루클린 자치구가 가장 높은 분포도를 보인다. 뉴욕시에서 이민자 밀도가 높은 10개의 지역 중에서 단 한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이 두 자치구에 위치한다(그림 3 참조). 10개 지역의 이민자들은 주로 중남미, 카리브해, 러시아, 중국, 기타 아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다.

2000년에서 2007년 사이에 위의 10개 지역은 뉴욕시의 다른 지역보다 더 큰 경제 성장세를 보였다(그림 4 참조). 해당 지역의 사업체 수는 14.8% 증가하여 뉴욕시의 다른 지역(3.3%)보다 훨씬 빠른 성장세를 나타냈다. 대부분의 경제 성장은 종업원 수 20명 이하 규모의 소기업에 집중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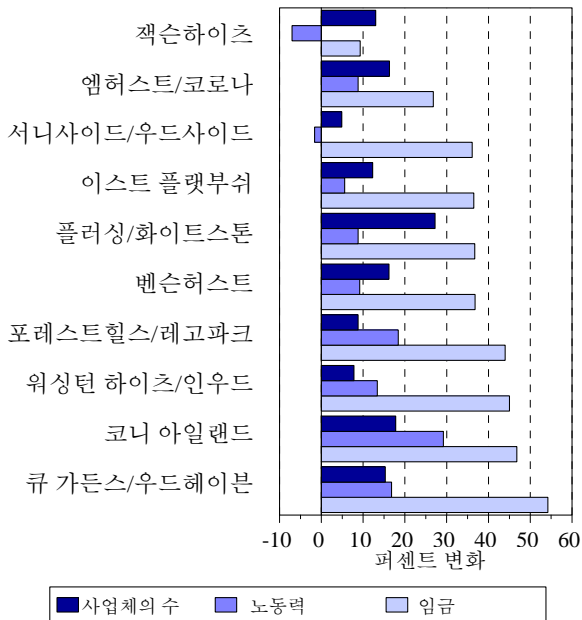
그림 3
이민자의 거주 비중이 가장 높은 10개 지역

지역	비중	상위 3개의 출신 국가
애크스턴/코로나	68%	에콰도르, 중국, 멕시코
잭슨 하이츠	64%	에콰도르,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서니사이드/우드사이드	59%	에콰도르, 중국, 방글라데시
이스트 플랫폼부쉬	57%	자메이카, 아이티, 트리니다드
플러싱/화이트스톤	52%	중국, 한국, 콜롬비아
포레스트 힐즈/레고 파크	51%	러시아, 중국, 인도
벤슨허스트	51%	중국, 러시아, 이탈리아
위싱턴 하이츠/인우드	51%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에콰도르
큐 가든스/우드헤이븐	50%	가이아나, 인도, 도미니카공화국
코니 아일랜드	47%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자료 출처: 미국 인구통계국(U.S. Census Bureau)

같은 기간에 위 상위 10개 지역의 총 유급 노동자 수는 8.2% 증가한 반면, 뉴욕시의 다른 지역의 유급 노동력은 0.9%만 증가하였다. 이민자들은 미국 출생 거주자보다 임금이 낮은 직종에 주로 종사하는 경향이 있으나, 상위 10개 지역의 총 연간 임금은 36.3% 상승하여, 뉴욕시의 다른 지역의 수치(32.8%)보다도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

그림 4
이민자의 거주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의 경제 성장률



참고: 변화는 2000년~2007년 동안의 변화임.
자료 출처: 미국 인구통계국(U.S. Census Bureau), OSDC 분석

업종과 직종

뉴욕시에는 190만 명(전체 노동력의 43%) 이상의 이민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개인 서비스업, 건설업, 레저, 접대,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주요 노동력으로 활약하고 있고, 의료 및 사회 복지 서비스 근로자의 반 이상을 구성한다(그림 5 참조).

그림 5
산업 노동력의 이민자 비중

업종	비중
개인 서비스(네일 샵, 세탁업 등)	68%
수리 서비스 및 지역사회 기관	56%
건설	56%
레저 및 접대	55%
제조	53%
의료 및 사회 복지	50%
교통	47%
소매 및 도매 거래	47%
전체 산업	43%
금융 활동	36%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	34%
교육 서비스	27%
정부	27%
정보	21%
유틸리티	19%

자료 출처: 미국 인구통계국(U.S. Census Bureau)

퀸즈 자치구의 이민자들은 노동력의 50% 이상을 구성하여 다른 자치구에 비해 가장 큰 수치를 보인다. 퀸즈에 있는 대부분 산업에서 이민자들은 주요 근로층을 형성하고 있었고, 정부 및 유틸리티의 종사 비중이 가장 낮았다.

브루클린에서 이민자들은 노동력의 절반에 가까운 48%를 구성했다. 그리고 이들은 개인 서비스, 제조, 레저, 접대, 의료 및 사회 복지에서 주요 근로층을 형성했다.

브롱크스의 이민자들은 개인 서비스 분야에서 80%를 차지하여 모든 자치구의 모든 산업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이민자들은 레저 및 접대, 소매 및 도매 거래, 제조, 건설, 교통, 의료 및 사회 복지 근로자의 과반수를 차지한다.

맨해튼에서는 이민자들이 개인 서비스, 레저 및 접대, 건설업에서 주 근로자층을 형성했다.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는 이민자들이 총 노동력의 4분의 1을 구성했으나 이 지역 어느 업종에서도 주요 근로층을 형성하지는 않았다.

뉴욕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폭넓은 범위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외국 출생 근로자가 종사하는 상위 5개 직업군은 간호, 정신 의학, 가정 간호 도우미와 관리인 및 건물 청소인, 메이드 및 가정부, 건설 현장 노동자, 공인 간호사 순이었다. 이민 근로자들은 또한 다양한 직업군에서 비중이 큰 근로층을 형성한다. 그림 6은 이민 근로자들의 종사 비중이 높은 직업을 퍼센트로 분류해 봤을 때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상위 25개의 직업을 보여준다.

그림 6
이민자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직업 상위 25개

직업	이민자 분포도
택시 운전사 및 기사	87%
메이드 및 가정부	83%
요식업 근로자	79%
요리사	77%
개인 및 가정 간호 도우미	75%
요리사 및 주방장	74%
건설 현장 근로자	73%
간호, 정신 의학, 가정 간호 도우미	72%
보육 관련 근로자	64%
웨이터 및 웨이트리스	64%
관리인 및 건물 청소인	64%
운전사/판매원 및 트럭 운전자	64%
공인 간호사	55%
캐시어	55%
소매점 근로자의 감독자/관리자	47%
내과 의사 및 외과 의사	46%
총 뉴욕시 노동력	43%
경비원/도박 감시관	42%
사무직 근로자	41%
회계사 및 회계 감사원	40%
소매점 판매원	40%
고객 서비스 근로자	36%
기타 관리자	32%
재무 관리자	32%
비서 및 행정 보조원	26%
초등 및 중학교 교사	21%

자료 출처: 미국 인구통계국(U.S. Census Bureau)

많은 이민자가 저임금 직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고임금 직업 및 전문 직업에서도 이들의 역할은 두드러진다. 일례로, 2008년 인구통계 조사에 따르면 뉴욕시 화학 엔지니어의 100%, 바이오의학 및 농학 엔지니어의 71%, 회계사 및 회계 감사원의 40%, 회사 임원 및 입법부 의원의 27%, 초등 및 중학교 교사의 21%가 외국 출생 근로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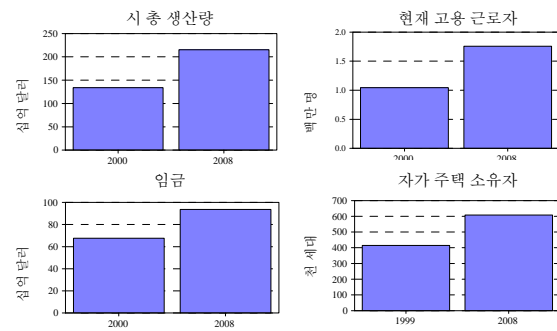
다수의 이민 근로자들은 의료 관련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간호, 정신 의학, 가정

간호 도우미의 72%, 자격증이 있는 임상, 직업 간호사의 56%, 공인 간호사의 55%, 내과 의사 및 외과 의사의 46%가 이민자들이다.

경제 활동

2008년에 이민자는 뉴욕시의 경제 활동 측면에서 2천150억 달러를 벌어들였고, 이는 뉴욕시 총 생산량(GDP)의 약 32%에 해당한다. 게다가 이민자들의 뉴욕시 총 생산량의 기여도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2000년에서 2008년 사이에 61% 상승하여 이민자 노동력, 높은 노동 참여도, 임금 수준의 상승을 반영한다(그림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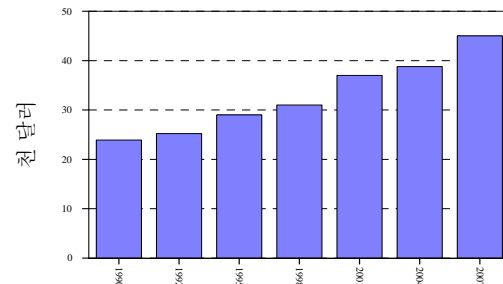
그림 7
이민자의 뉴욕시 경제 기여도



자료 출처: 미국 경제분석국(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미국 인구통계국(U.S. Census Bureau), OSDC 분석

년 23,900달러에서 2007년 45,000달러로 거의 두 배 상승했고, 이는 물가 상승률을 거의 15% 웃도는 수준이다(그림 8 참조). 이러한 성장 덕분에 인해 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민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1991년에서 2008년 사이에 이민자의 자가 주택 보유 건수는 두 배 늘었고, 1999년에서 2008년 사이에는 50% 가까이 상승했다.

그림 8
뉴욕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의 가계 소득 중앙값



자료 출처: 미국 인구통계국(뉴욕시 주택 및 공가 조사), OSDC 분석

이 리포트의 추가 사본을 원하시면 웹사이트 www.osc.state.ny.us를 방문하시거나 아래의 주소로 요청하십시오.

Office of the State Comptroller, New York City Public Information Office

633 Third Avenue, New York, NY 10017

(212) 681-4840